2011 굿뉴스의료봉사회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모집

의사를 한번 만나보는 것, 그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입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는 질병뿐 아니라 고통에 빠진 **영혼**과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과 같은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여름 아프리카 가나와 케냐에서 7명의 한국인 의사들이 의료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한 시발점이 굿뉴스의료봉사회(GNMV) 태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GNMV)는.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악과 마음의 고통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육간의 치유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함께 하는 GNMV 참가자들은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힘을 체험하며. 나눔의 삶에서 오는 행복 지수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GNMV)가 펼쳐 가는 활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는 GOOD NEWS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GNM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 회장 건물 주

아프리카 대륙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대한민국을 대표해 머나먼 길 아프리카로 떠나시는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료가 선진화되어 어려운 병도 척척 고쳐내는 나라가 있는 반면, 조그마한 상처에도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 2차 감염이 되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나라도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제청소년연합의 굿뉴스의료봉사단 아프리카 파견으로 인해 내전과 기근으로 질병이 만연한 아프리카 대륙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땅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몸만 고쳐주는 진료'가 아니라'사람들의 내적 고통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진료'가 됐으면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더불어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과 안위도 잘 관리하면서 활동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지구촌을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곳으로

굿뉴스의료봉사회의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지구촌 곳곳의 오지에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채,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 이웃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술을 베풀고 있는 의료봉사단 여러분께 의료인의 한 사람의로서 한의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로부터 인술제민(人術濟民)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은 몸이 아픈 것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소중하고도 고귀한 일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활동을 무사히 성공리에 마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지구촌 이웃에게 인술을 베풀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아직 **끝나지 않은 재앙**과 싸우는 **아이티**에도 도움의 손길을

2010년 1월, 23만여 명이 사망, 40만 가구를 파괴시키고 200만 명의이재민을 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1백만 명 이상이 여전히 텐트촌에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0만 명은 어린이입니다. 콜레라의 위협으로아이티의 의료상황은 진전되지 않는 이런 시점에 아이터 정부는 GNMV에도움을 요청했습니다. 6.25 사변 당시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아이티에 하루평균 1,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진들은 희망을 주고돌아왔습니다.

단체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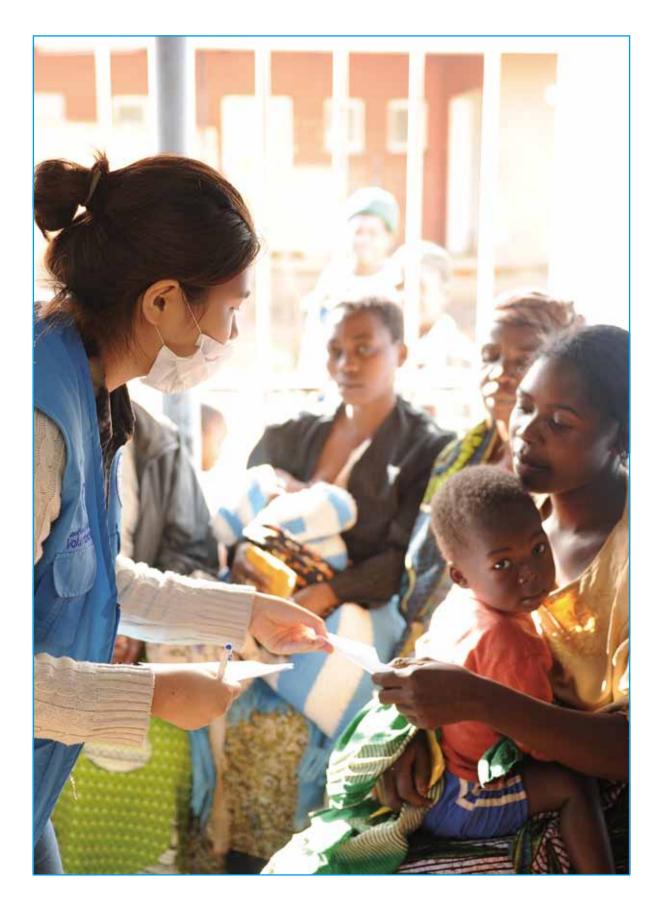
•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 소속 산하단체 굿뉴스의료봉사회 **설린모전**

- 세계 오지의 질병을 치료하며 의료 교육 기회 제공
- 봉사에 대한 적극적 인식 확산
- 의료봉사활동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를 공유하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 회복

지향목표

- 열악한 의료환경의 지구촌 곳곳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현지 의료인 양성 및 보건 교육 실시
- 마인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정신 함양

2008년 제 1회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2009년 제 2회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A 가나 의사3명, 간호사1명, 간호조무사 3명	파견 규모	A 가나, 토고,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5개국 5개팀
B 케냐 의사 7명 및 자원봉사자 3명	파신 ㅠ포	B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105명으로 구성
2008년 8월 11일-22일(12일간)	파견 기간 2009년 8월 10일-28일(19일간)	
1,000여명	진료 인원 10,000여명	
2010년 제 3회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2011년 제 4회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A 가나, 토고, 베냉, 케냐, 말라위의 5개국	교내기미	A 가나,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4개국
B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256명으로 구성	파견 규모	B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으로 구성
2010년 7월 18일-8월 22일(30일간)	파견 기간 2011년 7월 23일-8월 14일(예정)	
22,000여명	진료 인원	3만 여명 예상
2011년 제 1회 아이티 의료봉사단		2011년 제 1회 도미니카 의료봉사단
A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수도)	교건 그ㅁ	A 도미니카 산티아고
B 의료진과 현지자원봉사자 50여명	파견 규모	B 의료진과 현지의료진 10여명
2011년 4월 12일 - 4월 17일(6일간)	파견 기간	2011년 4월 17일 - 4월 20일(4일간)
5,600 명	진료 인원	1,800 여명



GNMV 제 4회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모집

2011년 제 4회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활동개요

No	구분	주최국	의료봉사 일정(입출국일)
1	서부	가나	7월 23일(토) - 7월 31일(일)
2	서부	토고	7월 27일(수) - 8월 3일(수)
3	동부	케냐	8월 3일(수) - 8월 10일(수)
4	동부	말라위	8월 6일(토) - 8월 14일(일)

[※] 상기일정은 항공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

구분	의료봉사단	IYF 월드캠프
오전 ▼ 오후	진료, 건강교육	국제심포지엄, 명사초청강연, 문화교류 및 체험 각종 클럽활동 미니올림픽 바이블포럼
저녁	음악회, 문화공연(세	계/아프리카 민속공연 외),마인드교육



모집안내

- **모집기간** 2011년 4월 11일(월) 2011년 6월 10일(금) 24:00시 까지
- 모집인원 약 200명 (각 나라별 50명 정원이며, 의료진 30명과 비의료인 20명으로 구성됩니다.)
- 의료인 지원서, 서약서작성 〉 항공예치금 입금, 필요서류 제출 〉 참가비잔금 입금〉 워크숍 〉 출국
- 비의료인 지원서, 서약서작성 〉 발표 〉 항공예치금 입금, 필요서류 제출 〉 참가비잔금 입금 〉 워크숍 〉 출국
- 참가자구성 양방 각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의료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의료관련 전문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생 등
- 지원활동 양방·한방·치과임상각과, 약국, 의료기사, 수액실, 보건위생교육, 간호, 영어-한국어통역, 불어-영어통역, 불어-한국어통역, 일반자원봉사(사진기자, UCC기자, 레크레이션 등)
- 비의료인 참가 합격자 발표 6월 17일(금) 16:00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말라위 국립병원은 의료 장비를 두고도 다룰 만한 전문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 치과에는 발치기구만 있을 뿐이다. 의과대의 졸업생들은 모두 해외로 전전하고. 전문의가 없는 이 나라에 의료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었다. 진료비는 무료지만 환자에게 하는 처방은 오로지 항생제와 진통제뿐이었다.

참가비용 및 절차

- **참가비** 280만원 [모든 참가국 동일합니다] 입금계좌: 국민 070137-04-008955 사)국제청소년연합(의료봉사단)
- 참가 신청 절차 홈페이지(www.gnmv.org)참가신청 〉 온라인접수 〉 항공예치금(20만원)납부 〉 여권사본 및 필요서류 송부
- 연락 및 통보 필요서류, 회비납부, 후원금납부방법, 후원물품 전달 및 수거 대해 안내예정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워크숍 : 팀별 업무 분담 및 시뮬레이션, 팀워크 세미나

※후원금 및 약품. 물품 후원 신청가능

후원금이나 약품, 현지 주민들에게 선물할 생필품, 의류, 학용품, 장난감등 후원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물품, 약품 등에 대해서는 요청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단, 항공권관련 부분은 여행사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준비사항

공통제출서류: 여권사본 1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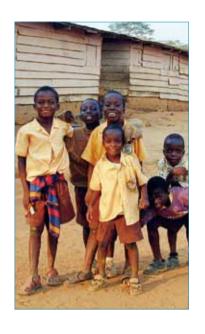
준비사항: 황열병 예방접종

의료인제출서류: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신청마감: 6월 10일(금)까지 선착순모집

• 문의 전국 1588-2346 / 070-7538-5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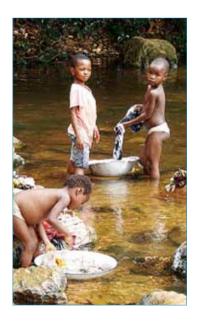
GNMV 아프리카 의료환경



가나 GHANA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나 북부지역은 최근에 에너지 위기와 장마와 홍수로 인해 더욱 어려운 악화되었다. 시골 지역주민의 3분의 1은 안전한 물을 마시기 어렵다. 인구의 11%만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안전하지 못한 물을 마심으로 인해 기니 벌레, 기생충 감염건수가 계속되고 있다. 에이즈 발병건수의 30%만이 보고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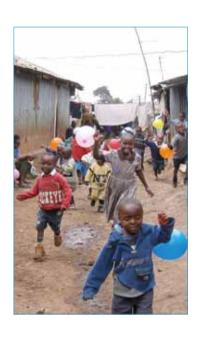
총인구	23,478,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72%
5세 미만 사망률	115 (명/천명)	5학년 진학률	60%
저 체중 신생아 비율	9%	1인당 GNI	590 (불)
안전한 식수보급률	80%	AIDS 고아	160,000 (명)



토고 TOGO

38년동안 재직했던 토고의 국가 원수 사망으로 인해 시작된 권력 투쟁은 35,000명의 난민을 만들었으며, 이재민도 10,000명이 되었다. 경제 제재와 개발원조의 감소는 보건과 교육 서비스의 질이 점차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어린이 에이즈 환자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기 쉬우며, 젊은 사람들은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총인구	6,585,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80%
5세 미만 사망률	100 (명/천명)	5학년 진학률	68%
저 체중 신생아 비율	12%	1인당 GNI	360 (불)
안전한 식수보급률	59%	AIDS 고아	68,000 (명)



케냐 KENYA

아프리카 동부해안에 위치하고 인구 3,400만 명 중 14% 이상이 HIV 감염자이다. 또한 전 인구의 60%가 16세 미만의 어린이다. 그 이유는 매년 2-300만 명의 어른들이 AIDS 와 말라리아로 죽고, 최근 몇 년간 영아와 어린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DS 사망으로 인해 약 50만 명의 고아들이 있고 그중에 약 5만명이 AIDS에 감염된 고아이다.

총인구	37,538,000 (명)	초등학교 취학률	76%
5세 미만 사망률	121 (명/천명)	5학년 진학률	84%
저 체중 신생아 비율	10%	1인당 GNI	680 (불)
안전한 식수보급률	57%	AIDS 고아	1,100,000 (명)



말라위 MALAWI

말라위호(니아사호)의 서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말라위호 동반에 있는 탄자니아, 남반에 위치한 모잠비크와 접한다. 1994년에 첫 대통령 선거가 열려, 물루지(Muluzi)가 집권하면서부터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와 개방화가 시작되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확산이 국가적 난제로 있다. 행정구역은 27개 행정구(district)로 되어 있다.

총인구	13,931,800(명)	초등학교 취학률	45%
5세 미만 사망률	178 (명/천명)	5학년 진학률	33%
저 체중 신생아 비율	20%	1인당 GNI	280 (불)
안전한 식수보급률	70%	AIDS 고아	15,000,000 (명)

후원 및 협찬 참여



후원회원 구분

•개인후원 GNMV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진행 물품, 약품,

후원금 등을 지원하는 개인

일반회원: 후원자가 임의의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후원 특별회원: 월 1구좌(5천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

•기업후원 의료봉사 진행 물품, 약품,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

후원금 등으로 GNMV를 후원하는 기업

후원회원 가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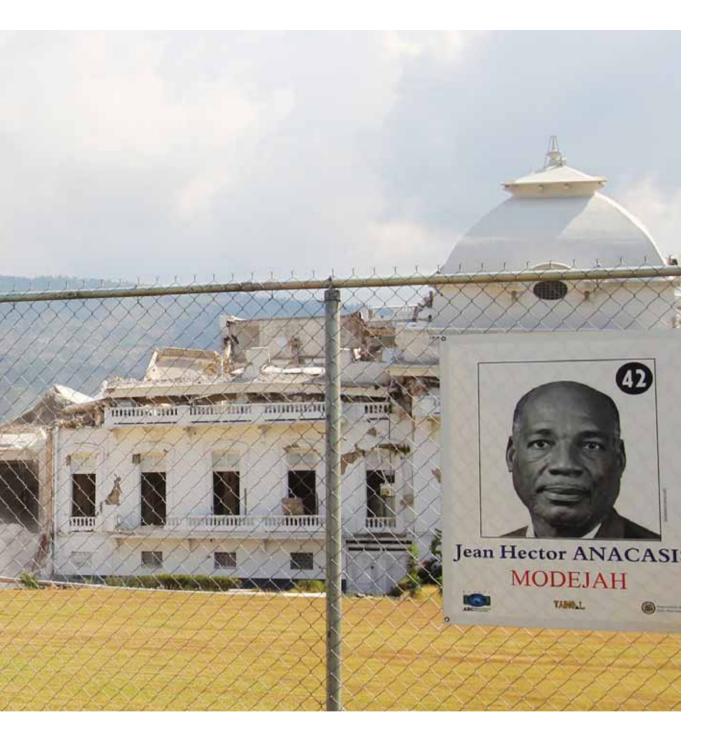
• 후원방법 홈페이지에서 회원/비회원 로그인 〉 신청접수 〉 개별연락 및 상담 〉 물품 발송 또는 수거·입금 확인 〉 후원완료

후원 및 협찬

- 물품 후원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 약품 후원 의약품 일체(기증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약품)
- ※굿뉴스의료봉사회는 비영리단체이며, 모든 후원 및 협찬에 대하여 요청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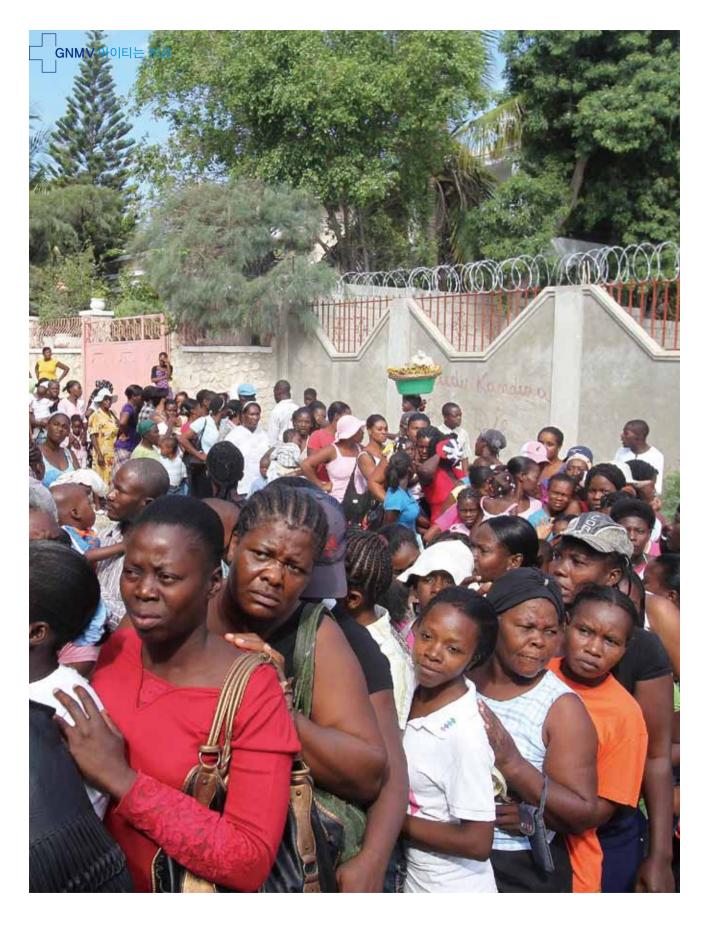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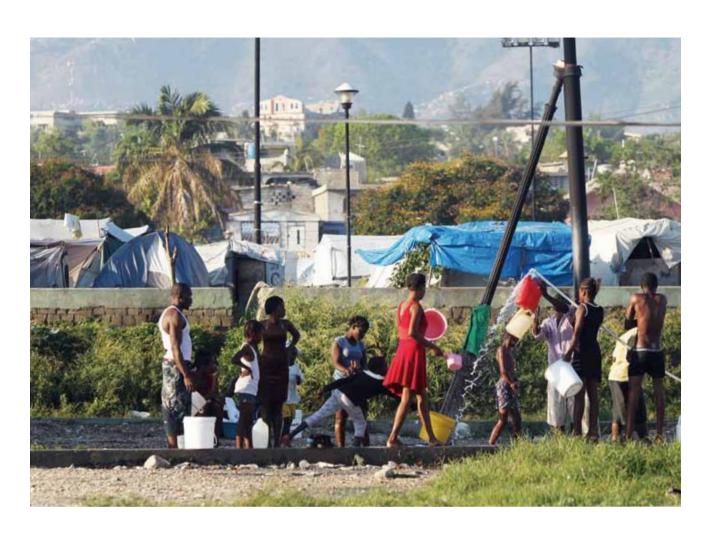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

2010년 1월 아이티에서 일어난 규모 7.0의 강진으로, 아이티 대통령궁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23만명 가량의 사람들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이티 전체 인구가 천만명이 안되는데 그 중 사망자가 23만이라면 숫자상으로도 엄청난 피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티는 아직 온전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무너진 건물들은 재건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사진은 강진으로 무너진 대통령궁의 모습.





지진 후 1년. 이제는 현실과 싸워야 할 때

지진피해로 인한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다국적 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에는 콜레라가 급속도로 번져 단기간에 3,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지진이 난 그 당시는 당장 생사를 걱정하는게 우선이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아이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 놓여있으니까.
의료봉사단의 무료 진료에 구름떼처럼 몰린 사람들(왼쪽)
난민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 줄 서 있다.(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

아직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 아이티,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도 점차 멀어져가고 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치안은 엉망이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곳에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이티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굿뉴스의료봉사단의 진료를 받고 있는 아이티의 어린이.(왼쪽)

주위 곳곳에 지진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티 사람들.(아래)



GNMV 아이티는 지금



그러나 희망은 있다

쉽게 잊혀지고 빨리 사라져가는 뉴스의 홍수 시대 그래도 이곳을 잊지않고 찾아주는 의료봉사단이 있기에 희망은 있다.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주로 영유아들이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죽는데 이번 아이티 의료봉사를 통해 그런 응급환자들이 목숨을 건져 참여한 의료진들이 큰 보람을 느꼈다. 우리나라와 1962년에 공식 수교를 맺은 형제의 나라 아이티.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2,000 달러(현시세 90억원)를 보내온 아이티. 그때 받았던 감사와 기쁨, 이제는 우리 손으로 되돌려줄 때이다. 굿뉴스 의료봉사단의 의료지원을 받은 후 곤히 잠든 아이티 아기들. 급성폐렴으로 하루이틀 정도만 늦었다면 죽을수 밖에 없었던 영아들이 생명을 얻었다.(위) 진료중인 아이티 영유아들.(오른쪽)





"아프리카에선 물 한 방울도 약 한 알도 너무나 귀했다.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땅 이다. 살면서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할 것 이다. 이번 여행은 간호사로서 살아온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이었다. 간호사가 되었 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다"

(이혜원 광양사랑병원 수간호사)

